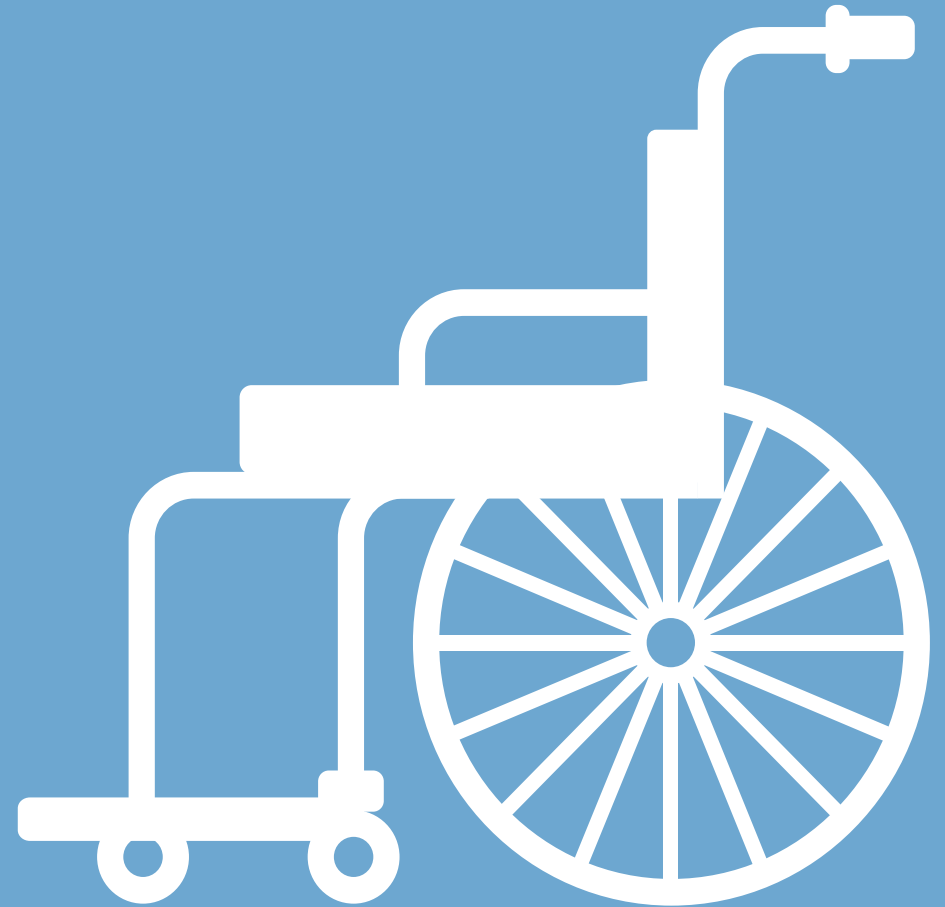


2 무장애 플랫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플랫폼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던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렇진 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 포함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37P

03. 의제 실행 41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45P



하나

교통약자

이동권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01 의제소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플랫폼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비장애인의 일상 속에서는 아침에 눈을 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조차 될 수 없는 현실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약자는 약 1,496만 명이며,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261만 명으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재 교통약자들은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부족이나 날마다 배차시간이 바뀌는 저상 버스,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의 부재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다. 그렇기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소리엔과 협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FLAT을 위한 PLAN

2018년 사회혁신실험실 리빙랩에서 공동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라이휠을 개발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FLAT'어플을 개발하였다.

'FLAT'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가 설치된 무장애가게와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알려주는 등 실질적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인 '안녕, 캠페인! 시민교육'으로 무장애도시 시민교육과 더불어 무장애도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본격적인 무장애 시설 데이터를 수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유튜브에 '무장애도시 아젠다' 공유 영상을 업로드하여 무장애 도시에 대한 개념과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의 행동이 아닌 임산부와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 약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임을 공고하였다.

본 의제 실행을 통해 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와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가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편의시설을 신규설치 혹은 개·보수 할 수 있으며 여행사나 포털에서도 교통약자의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 파악과 더불어 무장애 관광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실행 주체 소개

1

(주)소리엔

설립목적

기술기반 스타트업으로서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고자 재능기부의 성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 정리해 제공

비전

미래를 위한 무장애 도시구축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무장애 가계 협약 체결을 통한 무장애 가계 홍보, 예약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FLAT 서비스
- 임팩트 스케일업
- 각종 편의시설 설치/이용 정보와 입구에 턱이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된 무장애 가계 위치 등의 정보 제공

2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

시민참여 및 지역자원봉사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운동의 전개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함

비전

자원봉사, 대구시민의 문화로!

주요사업

- 안녕,대구! reaction
- 대구재능자원봉사단
- 대구기업자원봉사협의회
- 대구재난재해SOS자원봉사지원
- 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
- 자원봉사벽화길

3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설립목적

대구 장애인계의 중간 리더 육성 및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 발굴

비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 활동과 단체 간의 협력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목적

우리는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간다

비전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 NIA

주요사업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정책 수립 지원
-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정보화 백서 발간
- 국가정보화 전 주기의 계획, 예산, 성과의 체계적 관리 지원
-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
- 미래 메가트렌드 연구 및 중장기 지능화 전략 개발
- 정보화통계 조사·분석 및 통계집 발간
- 국가정보화 법체계 정비 지원

5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목적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비전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대구

주요사업

- 씨앗/씨앗+
- 소셜임팩트
- 공익활동스텝업
- 사회혁신실험실
- 청소년공익메신저
- 포럼/컨퍼런스
- 홍보
- 공익활동상담소
- 변화성장프로젝트
- 역량과 시너지
- 역량업
- 삼삼오오

6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목적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

비전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친구가 되어 사는 인간다운 사회

주요사업

- 장애인인권센터
- 정책기획
- 장애인권교육센터
-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교육
- 피해자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법·제도 개선
- 직업센터

7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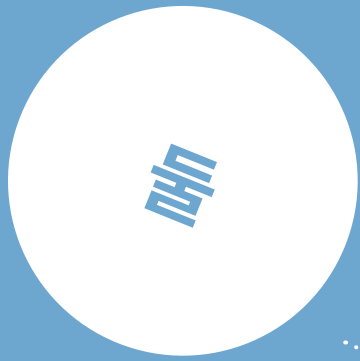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도모와 복리 증진

비전

안전공감 리뉴얼 20, 입체적 교통으로 새로운 DTRO

주요사업

- 도시철도 건설·운영
-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 도시철도 운영효과증진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운영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37P

03. 의제 실행 41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사업추진방식 논의**
 (지원대상의 이해, 교육지원주
 제 토의, 온.오프라인 지원경로
 모색 봉사자 교육)

1단계

1차 협업테이블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주)소리엔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5월 29일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2단계

6월 16일

2차 협업테이블
 (주)소리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대구사회혁신 컨퍼런스
 참여: (주)소리엔,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시설공단, 대구시 교통정책과
 대구시 장애인복지관, 대구시 관광과,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8월 27일

8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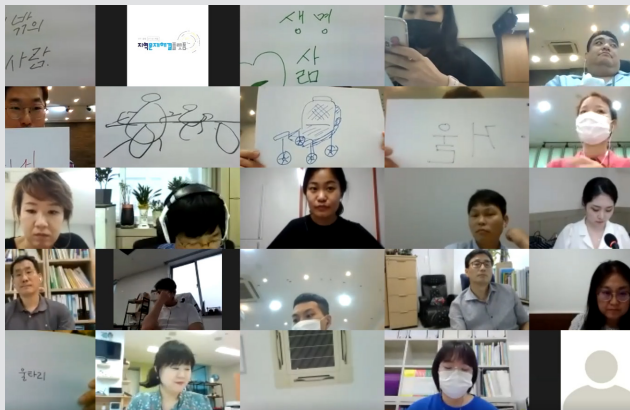
온라인 “공존” 의제 포럼
 발제: 이승욱((주)소리엔)
 이은자(대구시자원봉사지원센터)
 참여: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10월 15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대구시 관광과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공존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8월 7일 (금) 14:00~15:3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주)소리엔	이승욱 대표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수혁 선임연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정숙 차장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육성완 대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팀장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홍재우 팀장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공정옥 센터장

공존의제포럼

무장애 플랫폼 :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주제발제1	대구 무장애플랫폼 History		
	주제발제2	무장애 교통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의제별 이해관계자 자유 토론	2019 무장애플랫폼 의제실행	의제 실행 과정 공유와 발전 방향 제안	
			참여 소감과 보완 사항 제안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사업 방향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		
		무장애 관광여행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마무리	타지역 의제 실행 사례 공유			
		추후 일정 공유 & 컨퍼런스 참여 독려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6: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12명

(주)소리엔	이승욱 대표
대구시 관광과	김기완 주무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최문숙 주무관
대구시 교통정책과	황준선 주무관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정숙 차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수혁 선임연구원
대구시설공단	김다영 담당자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국장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홍재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곽복임 사무처장

기록자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남준현

워크시트 내용

김다영 담당자
대구시설공단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설공단 에서
모두를 위한 생활편의증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구 시설공단에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시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서 생활 속 곳곳에서 보이는 교통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의 노력

이정숙 차장

대구도시철도공사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에서
역세권 무장애 정보수집활동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봉사활동모집만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역세권 주변 경사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존재.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봉사시간을 인정

워크시트 내용

이은자 사무국장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개인적 참여를 유도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
-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목적과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많은 기관 단체들이 존재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

임수혁 선임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에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하지 않은 교통약자에 대해 공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감에 따라 데이터 수집활동 품질활동, 개발 확대도 하고 직원들의 인식개선 활동 필요

최문숙 주무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캠페인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많은 인식사업 진행 중
-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중요. 공감하는 문화 필요
- 장애공감서포터즈의 활동으로 무장애가게 지도 개발
-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배려가 아닌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경쟁력

김기완 주무관

대구시 관광과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에서
무장애 여행을 사회적 지원에 의한 복지 정책이 아닌 관광산업의 분야로 인식하고 장애유형별 관광코스 발굴 및 개발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월 대구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통과
- 무장애 관광의 수요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
- 어르신, 영유아, 임산부까지 폭넓게 포함
- 무장애 관광을 관광산업으로서 생각, 정책과 계획을 수립 중

워크시트 내용

곽복임 사무처장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작년부터 여행을 하기 위한 이동약자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 어플을 통해서 시민들이 서비스 개선사항을 요구
- 위험지역에 접근 시 위험지역에 대해 알림
- 방문예약이나 안내자매칭을 받을 수 있음
- 반걸음 앞서는 여행자로 여행 해설사를 양성
- 희망일자리와 연계하여 개선사항을 설치

이승욱 대표

(주)소리엔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주)소리엔 에서

무장애 편의 시설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검증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상과 관광을 분리할 수 없음
- 도심 전체의 불편요소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무장애 여행이 될 수 있음
- 현장조사로 수집된 정보이기에 실시간성이 떨어짐.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갱신
- 시간과 행정, 자금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더 빠르게 확산이 가능
- 체계적으로 의제를 확산시켜 안정이 될 정도의 기관협력이나 자금 마련

공정옥 센터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결과 축진의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의 목표를 두고 협업합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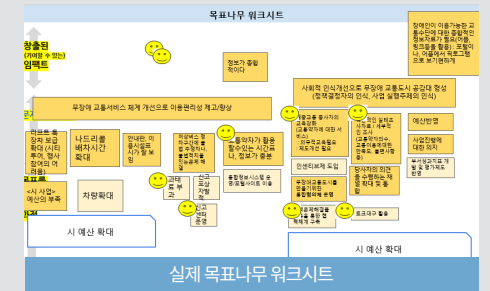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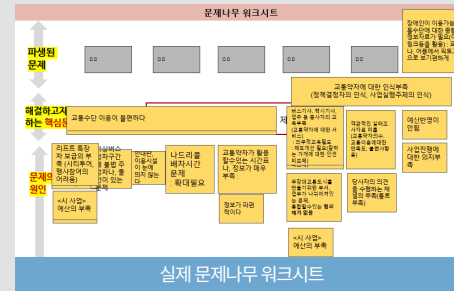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진행 :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2층

참여자 : 4명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정숙 차장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최문숙 주무관
대구시 관광과	김기완 주무관

기록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선임매니저



워크시트 내용

문제나무 워크시트

파생된 문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
 (어플, 링크 등을 활용)
 :포털이나 어플에서 퍽도그램으로 보기 편리하게 표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결정자의 인식, 사업실행주체의 인식)

문제의 원인

- 리프트 특장차 보급의 부족
- 안내판, 이용시설이 눈에 띄지 않는다
- (새사업) 예산의 부족
- 객관적 실태조사자료 미흡
- 나드리콜 배차시간 문제
- 저상버스 정차구간에 불법주정차나 물건이 있는 문제

1

목표나무 워크시트

문제 해결 목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이다

문제 해결 목표

무장애 교통서비스 체계 개선으로 이용편리성 제고/향상
 사회적 인식개선을으로 무장애 교통도시 공감대 형성
 (정책결정자의 인식, 사업 실행주체의 인식)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 리프트 특장차 보급 확대
- 안내판, 이용시설표시가 잘 보이도록 수정
- 예산 확대
- 객관적 실태조사자료 / 세부적인 조사
- 나드리콜 배차시간 확대
- 저상버스 정차구간에 불법 주정차나 불법적치물 있는 문제 해결

3

2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무장애플랫폼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시 : 2020년 5월 29(금) 진행 :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 7명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소리엔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정옥 센터장 이은자 사무국장 나영수 팀장 이승욱 대표 김수용 교육팀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손정아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안녕 캠페인 프로그램 전반소개 강의

- 도입은 처해진 입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이 주제를 발견한 사람의 시선
- 기존의 내용을 디지털정보로 변환하고 확장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활용방법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자
- 처음 시작 방법
 - 1) 사례를 가지고 설명
 - 2)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라는 작은 문제, 불편함으로 설명
 - 3) 각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공이라는 것을 설명.
- 공익의 영상, 플랫폼의 영상 활용
- 협업과정과 네트워크 등 계기 설명

안건2.

무장애도시 의제에 관련된 내용

-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
- 비대면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
- 무장애도시에 대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 장애인 당사자를 지칭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언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장
- 경사로, 너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 용어를 보편적으로 썼을 때 참여 독려에 대한 우려가 든다.
- 데이터 업데이트 개수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차등으로 지급
- 경사로에 있지만 문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장애인이 활용할 숙소의 경우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해 만석인 경우가 다수
- : 제도적으로 보안 필요
- 불특정 다수가 올리는 중복된 정보의 경우
- : 데이터가 업로드되기 전 한 번 검토를 하나 의미 있는 정보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검증하도록 고려
- 광주 남구의 사례 참고 후 진행

안건3.

안녕한 도시에 대한 강의

- 다음 주 기획안 정리 후 촬영 진행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무장애플랫폼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6월 16(화) 10:00
진행 :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 4명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
(주)소리엔	이승욱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작년 ‘무장애’ 의제 실행 후 개선방안**
- 개선사항 : 1)어플 개선 2)수요자 만족도 측정 3)인식 확산 및 홍보
(주)소리엔 : 1)어플 개선 예정 2)만족도 보다는 인식확산이 우선
의제포럼(6~8월 중)을 통해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인식확산 시도
- 안건2. SNS를 활용한 자원봉사 인증 관련**
- SNS를 활용한 자원 봉사 인증에 관해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예정
(‘플랫’어플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 플랫폼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협업테이블 구성 조사
- 안건3. 대구·광주 지역 연계한 무장애 여행 관련**
- 장애인들에게 무장애 여행은 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
 - 무장애 여행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부논의 필요
: 무장애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 (예정)
- 안건4. 의제 포럼 관련**
- 의제포럼 진행하여 인식확산 및 홍보의 기회 제공
 - 의제포럼 때 지난 의제실행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민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
 - 혹은 시의원 초청 간담회 형식을 추진해서 진행
- 후속조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플랫폼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소통 가능(예정)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협업테이블 구성(예정)

03 의제실행

안녕 캠페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무장애 플랫폼

1

조금 더 행복한 도시를 위해 : 무장애도시 협업 테이블

2020년 5월 29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소리엔,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자센터,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모여 협업 테이블을 진행하였다.

5월 29일 진행된 협업 테이블에서는 안녕 캠페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6월 16일에는 무장애 의제 실행 후 개선사항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개선사항에는 어플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 측정 그리고 인식확산 및 홍보가 중점이었으며, 의제 포럼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인식 확산을 시도해 볼 예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2

모두가 안녕한 무장애 도시를 위한 노력

8월 7일 진행된 온라인 공존 의제 포럼과 27일 진행된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개발자인 (주)소리엔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시 관광과와 장애인복지과 교통정책과가 참석하였고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시설공단,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참여하여 의제 실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사로 미설치구간을 업로드할 경우 봉사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의견과 장애공감서포터즈의 활동으로 무장애가게 지도 개발에 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올해 6월 대구시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대구시가 무장애 관광의 수요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안녕? 무장애 도시! : 안녕 캠페인!

2020년 8월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유튜브에서 ‘안녕 캠페인시민교육’,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무장애도시 아젠다공유’라는 동영상 업로드 되었다. 영상에서는 각자가 희망하는 무장애도시의 모습, 장애인들이 평소에 당하는 편견과 불편 그리고 안녕 캠페인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다.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무장애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45P



01 의제 실행 성과

무장애 플랫폼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①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
- ② 무장애 플랫폼을 위한 ‘안녕 캠페인’ 소개
- ③ 무장애 플랫폼 데이터 수집과 자원봉사 연계
- ④ 협업테이블 2회
- ⑤ 언론보도 2회
- ⑥ 무장애 플랫폼 카드뉴스 제작
- ⑦ 무장애 플랫폼 영상 4개 제작

언론보도

2 회

무장애 플랫폼 영상 제작

4 개

협업테이블

2 회

뉴스민 기제

2020-06-25.~2020-12-16.

1

대구사회혁신플랫폼, '주민 발굴 지역 문제' 민간·공공·정부가 함께 해결
2020-06-25 <뉴스민>



2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실효적인 사회공헌 활동”
2020-12-16 <뉴스민>



대구사회혁신플랫폼, '주민 발굴 지역 문제' 민간·공공·정부가 함께 해결

newsmin.co.kr/news/52334 2020-06-25

2018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혁신플랫폼이 올해는 전국 8개 광역자치제로 확대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사회혁신플랫폼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해 외제화하면 민간기관·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대구시민센터 대구사회혁신플랫폼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8개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각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넓히고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선순환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사업을 추진한 6개 지역은 지난해 1,205개 의제를 발굴, 94개 의제를 매칭했으며, 292개의 전국 추진 주제와 시민 2만여 명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지난해 성과를 설명했다.

대구사회혁신플랫폼의 경우 지난해 '무장애 플랫폼'을 지역 대표 혁신 사례로 꼽았다. '무장애 플랫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당사자와 플랫폼팀, 대구시민의힘동지연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소리엔, 대구자립동서센터 등이 협업해서 어플(플랫, FLAT)을 만들어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대구사회혁신플랫폼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일에 집중한다. 이들은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재난 상황에 따른 공동체 회복 방법도 찾아낼 것"이라며 "의제해결 과정까지 비대면, IT기술을 활용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화 사회혁신플랫폼 전국운영위원장은"한국사회는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서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재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 행정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의제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실효적인 사회공헌 활동”

newsmin.co.kr/news/54324 2020-12-16

관련기사"사회혁신을 위한, 지자체-시민사회-공공기관 삼각 동맹 ①"(20.12.10)
관련기사"지역 사회 공헌 위해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대타과 부여 필요"(20.12.17)
관련기사"공공기관 주도 넘어 시민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사회공헌으로"(20.12.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9년부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회혁신 플랫폼에 참여했다. 진흥원은 국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공공기관으로 1987년 설립된 한국전산원이 시초다. 국가 정부혁신 추진하고 국민행 정부혁신조성, 정보역차 해소 같은 ICT를 통한 사회 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흥원은 ICT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사회혁신 활동을 기획하던 차에 플랫폼에서 준비하던 '무장애 도시 조성' 의제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 조성 의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화하고 필요한 이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3차례 걸쳐 소속 직원들이 대구 동성로와 혁신도시 일대, 동대구역 등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 약 400여 개의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했다. 현재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늘어갈 수 있는 경사포가 있는 식당을 찾아내 장애인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건물들을 찾는 식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무장애 정보공유 플랫폼을 사업화한 스타트업 기업 파란자문에 의해 어플로 만들어져 공유됐다. 어플 '플랫(FLAT)'을 다운받아 접속하면 대구 동성로와 동대구역 인근에 백국하게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정보가 눈에 들어온다. 대구에서 시작된 무장애 정보공유 어플 '플랫'에는 이제 서울과 광주 같은 다른 도시 정보도 추가되고 있다.

